데스크 시각

지워진 '광주 고대사' 누구 책임인가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기구한 운명이다. 광주 고대사를 증언하는 각화동 고분 두 기가 허망하게 사라졌다. 각화동 1호분은 1980년대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다.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각화동 1호분은 학술지에 사진으로만 남았다. 당시 민도가 문화유산 복원·이전을 거론할 수준이 아니었기에 빚어진 참사였다. 최근 파괴 사실이 알려진 각화동 2호분은 북구 각화정수장 입구 언덕에 있었다. 문화동주민자치위원회의가 2009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 발굴을 의뢰해 빛을 봤다. 발굴 비용이 턱없이 모자랐지만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정비·복원에 필요한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활용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무관심에 각화동 고분 모두 사라져

각화동 2호분의 역사적인 위상은 매우 높다. 광주·전남 고대사의 뿌리인 마한이 백제에 병합되기 전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고분으로 확인됐다. 각화동 2호분은 고고학계에서 광주지역 고분을 조명할 때 반드시 거론한다. 이 고분은 2012년 광주시지정 문화유산자료(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됐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땅 주인이 돌연 매장유산 지정요구를 철회한 탓이다. 고분이 매장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이 건축제한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한 동안 잊혀졌던 각화동 2호분은 2021년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해당 부지를 사들인 토지 소유주가 건물 신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 중 고분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구청은 유적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했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줘 직무를 유기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애초 토지 소유주가 문화유산자료 지정요구를 철회했을 때 이전·복원 등을 검토했더라면 유적이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결국,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광주의 역사'가 지워진 것이다.

광주 고대사의 수난은 현재 진행이다. 광산구 신창동 유적은 1963년부터 28차례 발굴이 이뤄진 국가유산(사적 제375호)이다. 기원전 1세기 원삼국시대 유물이 총 2000여 점이나 출토됐다. 현악기인 슬과 북, 수레바퀴 일부, 비단, 베틀, 유리구슬, 칠기, 활 등 한국 최초·최고 유물들이 쏟아졌다. 사적 지정 면적(26만715㎡)의 30% 밖에 발굴하지 못한 신창동 유적은 일본을 대표하는 요시노가리 유적(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에 버금가는 역사·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쉽게도 호남고속도로가 지난 1992년 개설되면서 유적지가 두 동강 난 상태다.

내년이면 신창동 유적지는 또 한 차례 수난을 겪게 된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에 유적지 1.85㎞ 구간이 포함돼 파헤쳐질 운명이다. 2020년부터 3차례 심의를 부결·보류한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의 거듭된 확장공사 심의요청에 조건부 개발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국가사적이니 국가유산청 소관이라 해도 광주시와 광산구의 침묵은 온당치 않다. 국가사적을 보유한 지자체가 훼손을 묵인·방치했다는 오명까지 피할 수는 없다. 광주시나 광산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번 쯤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은 광주일보에 쓴 글('고고학자 임영진 교수가 본 마한')에서 "고속도로 확장 때가 되면 우회는 어렵더라도 고속도로를 지하에 설치해 동강난 지역을 연결해야 한다"고 보존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유산을 아끼는 전문가들이 제기한 조언과 대안은 행정편의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외면되고 묻혔다. 더 씁쓸한 사실은 행정에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을 아예 자문이나 조언을 듣는 자리에 부르지 않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신창동 국가사적 또다시 훼손 위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신창동 유적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열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더 안타깝다. 당시 광주시는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신창동 유적을 십분 활용했다. 실제 전남 지역에 고분이 많으나 마한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은 신창동 유적에 견줄 수 없다.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광주시가 2022년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을 건립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 정작,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신창동은 지금 훼손 위기에 놓여 있다.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지가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영산강 Y프로젝트'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창동 유적지에 2000년 전 마한의 옛 수로도 재현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적 훼손을 방치하고 옛 모습을 재현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은펜칼럼

광복절 단상(斷想)

김창균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1978년 4월, 한탄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주한미군 그렉 보웬은 이상한 돌을 발견하였다. 고고학을 전공한 그의 눈에 띈 돌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밝혀졌고, 연천 전곡리 주변에서만 3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이 4000점 넘게 나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없다는 학설이 수정되었고,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한국에서 발견된 구석기 도구가 일본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문화 전파 흐름이 어떻게 귀결될지 뻔하기에 말이다.

그러던 중 1981년에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고고학자가 4만 년 전의 뗀석기를 발견하며 일본 구석기 연대를 1만 년 끌어 올렸고, 이어 1990년대 말에는 70만 년 전 유적을 발굴하는 등 일본 열도를 흥분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0년 8월, 자신이 조작한 유물을 몰래 묻는 모습이 한 신문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20여 년간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간의 여러 의혹을 학계조차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록 후지무라 개인의 욕심일지라도 그걸 부추기고 박수갈채한 일본 사회의 감춰진 욕망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특정 대상보다도 자신이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을 얻으려는 우월 의식은 개인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으로도 드러난다고 한다. 그런데 우월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부정하기 위한 허세임을 알프레드 아들러는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월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짓 우월성을 꼽은 바 있다.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도 한사코 가해의 역사를 감추는 행동에서 평행이론처럼 또 하나의 자취를 발견한다.

한편으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이른바 벼락도끼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약처럼 달여 먹었다고 한다. 벼락도끼란 바로 선사시대 돌도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음양학적으로 영험한 효능이 있을 거라고 믿어 왕에게 진상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갈아먹은 유물만 5만 점이 넘는다고 추정한다니,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어 아이에게 채워 주기도 하였던 선조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스럽다. 15세기 문인 이육은 벼락도끼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노련한 장인이 만든 물건일 가능성을 그의 문집 '청파집' 중 '청파극담(靑坡劇談)'에 남겼는데,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다른 나라 병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사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원의 진가를 발견하여 빼앗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1984년에 미국인 베리 잉거는 홍도에서 빛이 나는 잎을 가진 흑산도비비추를 발견했다. 곧바로 해외로 반출되어 Hosta yingeri S.B. Jones라는 학명이 부여되는데, 학명을 부여한 Jones가 채집자 Yinger를 종소명에 넣은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잉거비비추(Hosta yingeri)'라는 품종으로 등록되어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되고 말았다. 학명이 나왔으니 말인데, 울릉도에 자생하는 한국 고유종인 섬초롱꽃 학명에는 기가 막히게도 Campanula takesimana라고 '다케시마'가 들어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 나카이가 학명을 붙였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가 녹아 있는 소나무(학명 Pinus densiflora)의 영문 일반명은 붉은 일본 소나무라 해서 'Japanese Red Pine'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었다. 소나무 분포의 중심이 한반도지만 일본의 소나무가 먼저 서양에 알려진 까닭이다. 학명은 바꿀 수 없지만, 다행히도 일반명은 선취권이 없기에 국립수목원은 'Korean red pine'으로 홍보하며 소나무 광복을 선언하였다. 지난 2015년 일이다.

충남 안면도 송림에 가면 V자 칼자국이 선명한 소나무를 보게 된다. 일제강점기 때 전쟁 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한 송진 채취의 흔적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아픔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가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하여 세계에 알리고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마침 내일이 광복절이다.

기 고

10주년이 되는 '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매년 8월 18일은 '쌀의 날'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하였는데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많은 날 중에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쌀미(米)를 풀어내면, '八(8), 十(10), 八(8)'이 되는 것에 착안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쌀은 대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주식으로 예전부터 귀한 곡식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렇다 보니 곡식 만 섬 가량을 거두어들이는 이를 큰 부자라는 의미로 '만석꾼(萬石꾼)'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귀했던 쌀이 요즘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26일에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대비 0.6%(0.3g) 감소하였다.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110.2kg)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이며,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4.6g 정도가 된다. 밥 한 공기 분량의 쌀 양이 100~150g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세 끼 식사 기준 매 끼니 반 공기 정도를 먹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이외의 대체 먹거리가 많아진 데 기인한다. 쌀 소비 감소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기능 및 홍수나 토양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쌀 자체의 소비도 늘려야 하겠지만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쌀 소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국민들은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하며, 그리고 이를 지원해 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라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한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쌀의 날'을 통해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社說

온실가스 방치하면 초재난급 폭염 일상화

13일 기준으로 올 여름 광주에서만 25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후재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유독 광주의 폭염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다. 더위의 대명사인 대구보다 광주가 더 덥다는 의미의 '광프리카'가 일반화 된지 오래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50년치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전국 25개 도시의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 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평균 폭염 일수가 직전 10년간(2004~2013년) 평균보다 2.4배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광주는 폭염 일수가 35일에서 105일로 무려 3배나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폭염 일수가 구미(106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대전(96일)과 대구(83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더라도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76년 후인 2100년에는 한여름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초재난급 폭염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광주의 경우 여름이 4월부터 시작해 190일이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름 190일을 비롯해 봄 90일, 가을 85일로 겨울이 사라져 '삼계절'이 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강수량도 크게 늘어 2019년 1121㎜였던 광주지역 강수량이 2100년에는 199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히 강수량이 급증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 100㎜가 넘는 게릴라성 물폭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재난이 상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안세영 작심 발언, 체육정책 개혁 계기되길

파리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안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작심 발언 파장이 대단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와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연맹도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수계약 관리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안세영의 문제 제기에 계약 기간을 줄이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배드민턴 협회 운영에 대한 안세영의 작심 발언은 체육계에 만연한 종목별 협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이슈화 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배드민턴 협회 측이 안세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일각에선 안세영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이는 젊은 선수의 용기를 매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물타기 전략일 뿐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후 광고계와 연예계의 쏟아지는 러브콜에도 "선수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훈련에만 집중하겠다"며 모두 고사할 정도로 사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올림픽이 끝난 후 귀국한 자리에선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성적만 내면 연예인처럼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선수와는 결이 다른 행동이 그가 진정한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나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학교를 나온 안세영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지금이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배드민턴은 물론 종목별 협회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無等鼓

펫로스 증후군

가족 다섯이 함께 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는 사람이 아닌 동물도 포함돼 있다. 올해로 여덟 살이 된 반려견 '사랑'이다. "언제부터 동물이 가족이 되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하지만 누가 뭐래도 사랑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임에 틀림없다.

사랑이와 지낸 이후 많은 게 달라졌다.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세상 모든 동물들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얼마 전 회사 선배가 건네 준 책 한권을 받아들고 울컥했던 기억이 있다.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언젠가 찾아올 그 날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사고나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떠나게 되면 반려인들은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겪게 된다. 의학적 용어로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물뉴스 매체인 애니멀피플의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50%가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은 '더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은다. 후회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겨내거나,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라고 조언한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유난이냐",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어봐라"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정이기에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지만 주위 시선으로 인한 상처가 더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책 속 저자가 전해주는 말을 되새겨 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올 날이기에….

"아이와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쁘고 행복했던 수많은 추억을 함께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기억과 상실의 아픔이 공존하는 펫로스라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슬픔은 절로 치유됩니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